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2017년 12월 6일(수) 트럼프 대통령 예루살렘 수도 인정 발언

12월 13일 최대 이슬람 협력 기구 57개국,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 수도'

12월 18일, UN 안보리 15개국, 예루살렘 수도 철회 안 14개국 찬성, 미국만 반대

12월 21일, UN 총회, 193개국 중 128개국 철회 요구,

아무 의미 없는 투표, "지옥 문이 열렸다" 등 호들갑, 유대인 3.3경 투자(33,000조)

두 백성이 중동의 같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누구의 땅인가? 이스라엘인가, 팔레스타인(아랍)인가? 누가 언제 어떻게 그곳의 소유주를 정할 수 있는가? UN, 아랍 국가들,

전쟁을 통해서, 역사적 증거로,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 준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벧후1:20-21,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성경의 구조

역사를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

사람의 관점: 진화론자들의 200억년 우주, 300만년-100만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 거짓말

성경대로 믿으면 우주 지구 사람 6000년, 사람 편에서는 이 6000년도 엄청 긴 시간

인류 역사에 관한 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1000년이 하루(시90:4; 벧후3:8)

지금까지 6일, 1000년 왕국(1일) 이후 영원한 차원, 새 하늘과 새 땅,

과거의 영원, 시간, 미래의 영원,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점에 불과하다.

지구와 우주의 창조 이전, 마귀와 천사들 삼분의 일 창조, 반역(겔28, 사14, 계12)

창조자가 천사의 창조물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보여 주려고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을 창조함
마귀가 곧바로 다가와 아담과 이브를 선동함(창3:1, 4), 이상적인 것 약속: 죄와 사망이 들어옴
하나님의 통치계획 좌절 시도

이후로 인간의 6000년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 역사: 두 뜻이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 약속,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

인류 역사에서 사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킵바이블닷컴, 우측 상단, 상세검색 에스라 성경 지도, 스터디 바이블 지도 72쪽

1. 아담과 이브 시험

2. 아담 이후 1500년 쯤 지나서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인류 멸절 시도

3. 그 이후 바벨탑,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짐, 하나님의 가치와 마귀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완전히 뱀 문화, 악 속에 빠져 있음

4. 욥 시험, 5. 예수님 시험, 6. 십자가 처형 관여, 7. 현 시대, 8. 적그리스도, 9.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남, 10. 무저갱, 11. 영원한 불 호수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는 차원: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심판, 이 과정에 사람들 존재, 하나님의 뜻, 마귀의 뜻

하나님의 땅 분배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땅에 왕국 건설: 성경의 총 주제

이 땅에서의 왕국: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함, 오늘은 백성과 땅 이야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심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세우시고 땅을

분배하심

신32:8-9, 8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자손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9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의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땅을 창세 전에 이미 구상하심, 이스라엘의 자손들 수에 따라, 12나 70을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에 따라 즉 크기, 형편, 상황에 맞게 땅을 나누어 줌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출19:5-6)
민23:9, 19,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메시아 대언 민24:16-19

민족들 그림(스터디성경, 에스라 지도 10쪽)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는 창10장에 기록됨: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 의해
야벳의 후손들(2-5): 유럽

함의 후손들(6-20): 시날 땅(바빌론), 미스라임(이집트), 갑도림에서 블레셋(팔레스타인은 크레타 섬, 14절), 15-19절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 이 땅이 현재 팔레스타인 땅
셈의 후손들(21-31), 에벨의 모든 자손들(21), 에벨에서 히브리, 엘람(페르시아), 아람(시리아), 욥단(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아랍) 등

목적: 행17:26-27,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지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흑사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모이면 주님을 대적한다. 그 일의 시발점이 홍수 이후 바벨 탑(창11장), 10장은 11장 사건을 미리 보여 주는 것, 떨어져 있어야 주님을 찾는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 인류가 섞인다. 거주지 경계가 무너진다. Melting pot, 이슬람의 대이동, 우리나라,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 중동 지도 설명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 메시아를 내신다(창3:15).

1. 이분은 둘째 아담으로 인류 구속

2.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국을 실제로 이 땅에 건설하고 치리함.

드디어 창11장에서 민족들 분산: 메시아를 낼 민족이 형성되어야 함

이 일을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BC2000): 드디어 구속 사역이 실체를 드러냄
아브라함 이동 지도: 가나안 땅

창12장, 셈족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창12:1-3).

가나안 땅으로

약 500년이 지난 뒤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재판관 시대, 왕정 시대, 다윗의 왕조를 통한 메시아 구약성경의 대언자들 대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끼어 있음: 즉 왕국을 세우는 가운데 이방인 프로그램으로 교회 형성
왕국 제시, 왕국 연기, 이방인 교회, 왕국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

첫째 아담이 망친 것을 회복하시려고: 무엇을 망쳤는가? 왕국 프로그램

하늘의 왕국, 왕국, 하나님의 뜻, 결국 메시아 거부, 재림으로 미루어짐

재림하시면 사9:6-7, 11:1-10 등 성취, 평화의 천년 왕국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왕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한다.

최종 목적: 마귀의 그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왕국 건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선다.

민족(백성)과 땅

가나안 땅 이야기

성경의 가나안 땅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히브리말로는 펠레셋(구약의 블레셋, 구약에 약 250여 차례), 필리스티아, 라틴어 팔레스티나,

로마가 유대 지역 멸절 이후 로마의 주, 시리아 팔레스티나, 영어 1800년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부름
한 마디로 지금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전체(가자, 서안 지구, 이스라엘, 요르단 일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여러 민족들이 지나다님: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

지구의 중심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짐(창10:15-20)

그런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할 때까지

그 이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창9:25).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저주의 한계가 정해짐(행17:26)

즉 원하는 대로 아무 땅이나 갖지 못하게 하심,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함(전3:11)

단4장의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왕국과 왕권과 땅을 주신다.

즉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잠시 땅을 차지한다고 하심

그 이유: 하나님이 정하셨다.

아브라함 언약(창15)

아브라함의 구원(창15:5-6)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7)? 어떻게 아느냐? 헌물 준비, 언약을 맺겠다.

예언(13-14)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옴(16), 1. 아모리 족속의 불법, 아직 참을 만함, 400년 뒤에는 참을 수가
없다.

가나안 족속의 불법이 하늘을 찌름: 극도의 저급한 우상, 인신 제사, 동성애, 수간
레18:21, 22, 23, 24, 25, 27, 땅이 그 백성을 토해 냄

2. 400년 체류 기간에 민족 형성: 장정만 60만

3. 땅 약속(18)

4. 약속의 증표: 하나님이 직접 짐승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심(17)

가나안 땅 지도

● 가나안 족속(Canaanites, 케이너나이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급속하게 불어났으며 무역과 전쟁을 통해 많은 재물을 불리고 지중해 연안 지역과 여러 섬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우상숭배와 가증한 행위로 그 땅을 영적으로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는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고 여호수아가 궁극적으로 그곳을 정복했다.

I. 히위 족속 II. 제한적 의미의 가나안 족속, III. 기르가스 족속, IV.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근처의 언덕 지역을 소유했으며 사실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은 여부스였다(수15:8, 63; 18:28).

V.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사해의 서쪽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거주했고(창14:7) 그 뒤에는
가나안 땅의 동남부를 형성한 산지의 여러 지역에 퍼져 살았다. 많은 경우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족속을 뜻한다. VI. 헛 족속 VII.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 외에도 알가 족속, 아르왓 족속, 하맛
족속, 스말 족속 등이 살았다(창10:15-20). 또 가나안 땅에는 기원이 다른 여러 족속이 있었다:
아낙 족속, 아말렉 족속, 르바 족속 등이 포함된다.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왕국

이집트 탈출 이후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재판관들의 시대, 왕정 시대

드디어 다윗 시대, 삼하 7장의 다윗 언약, 다윗의 계보를 통한 메시아 왕국, 왕조(사9:6-7의 메시아 왕국, 눅1:32-33의 천사 수태고지)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 아시리아 북왕국 멸망, 바빌론 남왕국 멸망, 70년 포로 생활, 남왕국 유다의 복귀(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그 뒤 메시아가 드디어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심

1.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음(마2:2)
2. 30세에 공생애 시작,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 27:37).

예수님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을 잘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바로 보기>

교회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은혜의 기간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막1:1, 14)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다(마4:17).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단2:44). 예수님은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각종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으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했고(마23:37-39)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전달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다(마24: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롬11: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랐고(눅2:30-34; 38)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실망에 잠겼지만(눅24:21)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그분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행1:6) 이때에 그분께서는 왕국의 회복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고(행1:7) 이에 그들은 왕국의 회복을 바라며 복음을 선포하였고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권면했다(행3:19-26).

하나님께서 40년간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음

결국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Titus)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파시키고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왕국의 회복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 이방인들의 때(Times of the Gentiles) : 이스라엘 압박

하나님께서서는 주전 606년경에 세상의 권세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하셨다. 바로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눅21:24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곧 하나님께서 심중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기간으로 7년 환난기까지 이어진다(계11:1-2).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이방인들이 득세하는 때, 이때는 단2장의 느부갓네살이 꾸 꿈과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이 포함된 다니엘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2년에 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단 2:31-45).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위에서부터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의 쇠퇴를 보여 주며 형상의 무게 또한 줄어든다.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한다(단2:37-40).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네 왕국 곧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의 정부로서 계승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왕국들의 개수와 그 이름이 순서대로 밝혀져 있다(단2:38-40; 8:20-21; 9:26).

다섯 가지 세상 왕국 도표

한편 이 형상은 산에서 잘라 낸 돌에 발을 맞고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데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단번에 형상을 부수고 만다. 또한 이 형상의 멸망의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후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상의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던 주후 364년경에야 나타났고 열 개의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돌이 형상 위에 떨어지는 때는 ‘이 왕들의 날들’ 곧 장차 있을 열 개의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때로서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단 2:44; 7:23-24).

여기에 나오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네 가지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왕국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있을 ‘돌 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돌 왕국’이 그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 왕국’은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며 형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끝나게 된다.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 그리고 불신자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마귀 역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아랍, 이슬람, 러시아 등 공산주의 세력
로마의 유대인 박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사람 티투스(디도)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건축물 중에서는 세 개의 망대와 서쪽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다(통곡의 벽). 주후 73년경의 마사다 항전, 936명이 자결함

그 뒤에도 유대인들은 거기로 돌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려 했으나 아드리안 황제는 주후 135년에 이곳에 식민지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돌아오는 자는 사형시켰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기 위하여 이방 신들에게 이곳을 바쳤다. 로마 사람들은 이 지역의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예루살렘을 엘리아캐피톨리나로 바꿈

콘스탄틴 대제, AD 313년 밀라노 칙령, 예루살렘 복원, 성묘 교회, 탄생 교회 등 여러 건축물
카톨릭 유물,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함마드(570-632)와 이슬람의 확장: 드디어 마귀의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됨

40세경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를 받고 대언자로 나섬,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포교, 그러나 실패
그 뒤 622년 9월 메디나로 이동(헤지라), 이슬람의 기원 1년, 그는 종교 지도자, 입법자, 군사 지도자,
630년에 메카 정복, 632년에 사망

무함마드 사망 이후 아라비아 사람들의 대정복 시작: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병합, 페르시아 타도
그 이후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북부 인도

이슬람 제국(사라센 제국) 지도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민족이 쓰던 아랍어가 온 세상으로 퍼지면서 아랍어 문화 형성
이슬람 종교 문화 형성, 지중해 전 지역이 이슬람화

638년 동로마 제국이 아랍에게 패배, 바위 사원, 무함마드 승천 장소 알아크사 사원

1077년 셀주크 투르크의 예루살렘 순례 금지, 십자군 전쟁, 천주교회가 탈환하지 못함
구시가지 설명

오스만 투르크 제국(오토만 제국)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아나톨리아), 이슬람 왕조, 오스만 1세(1299년), 1922년 해체, 623년 동안 동로마 제국, 남동 유럽의 기독교 제국,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제국 정보, 지중해 세계의 과반 차지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돌켈)

1516 오스만 투르크의 예루살렘 지배

1840년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갈등, 팔레스타인 지역 황폐화

한 땅에 대한 두 약속

1차 세계대전(1914-1918),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섬

1917년 11월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가 유대계 영국인 은행가 겸 시온주의 운동의 재정적 후원자인 로스차일드에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도록 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
유대인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유대인 이민자들 몰려들어옴

그보다 2년 전인 1915년에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인 맥마흔은 아랍의 지도자인 후세인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랍인들이 참전하면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국가 건설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세계 대전 중 1917년 영국이 터키로부터 예루살렘 탈취

1922년 국제연맹이 영국에게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다섯 번에 걸친 아랍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거부

1. 1936년 4월에 아랍 사람들이 영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대반란
영국은 Peel 위원회 조직, 결론 두 백성이 같은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아랍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 땅의 80%를 아랍인, 20% 유대인에게
유대인 수용, 아랍인 반대, 첫 번째 반대
2. 1947년, 영국은 UN에게 해법 자문, UN 역시 두 국가 해법
1947년 11월 7일, UN은 두 국가 해법 투표로 결정, 예루살렘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10년간 직접 관리, 10년 후 주민 투표로 어디로 갈지 결정
유대인 찬성, 아랍 반대
결국 중동 전쟁을 일으킴: 1948년 5월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은 동예루살렘 확보(Old city), 이스라엘은 영토 확장,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 요르단은 동예루살렘을 제2 수도 지정
3. 1967 아랍과의 3차 전쟁,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6일 전쟁, 3차 전쟁 지도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가자 지구, 서안 지구, 골란 고원, 시내 반도 점령
이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 정부의 절반은 가자 지구는 이집트, 서안 지구는 요르단에게 돌려주자, 다른 절반은 그 지역을 그 지역의 아랍 사람들(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자. 그들이 국가를 건설하게.
몇 달 뒤 아랍 국가들은 수단에서 회동: 세 가지 No! “이스라엘과 평화 No! 이스라엘 국가 불인정 No!, 이스라엘과 타협 불가 No!, 세 번째 거절, 영토가 더 줄어 들
4. 2000년, 이스라엘 수상 에훅 바락, 클린턴 주재, 미국 캠프 데이비드, PLO 리더 야사 아라파트 두 국가 해법: 가자 지구 100% 서안 지구 94%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안 제시, 아라파트 거절
클린턴의 말: 그는 14일 동안 No만 하다 갔다.
오히려 자살 폭탄 테러로 100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 죽고 수천 명 사상자(버스, 음식점, 피자 가게 등)
5. 2008, 이스라엘 수상 에훅 올메르트, 에훅 바락보다 더 많은 땅 약속, 그런데 새로운 팔레스타인 리더 압바스가 거절, 다섯 번째
6. 마지막 두 제안 사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완벽히 철수,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곳을 이슬람 테러 기지로 만들, 하마스
7. 그러므로 중동의 평화를 원한다면 유대인들을 압박해서 또 제안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박해서 유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해야 한다.
8. 이러한 가운데 198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영원한 수도라고 선언
9. 미국 1996년 대사관법,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 이전
10. 2017년,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선언

아랍과 이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Philistines, 필리스티즈)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에 거주하던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명칭은 블레셋(Philistia, 시60:8; 108:9, 혹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래되었다. 원래 그들은 갑돌에서 나왔는데 어떤 이들은 그곳이 크레타라고 생각한다(창10:14). 그래서 그들은 갑도림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아비 족속 즉 하세림에서부터 앗사(가자)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거주했다(신2:23).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유대의 높은 지역과 지중해 사이에 있었으며 땅이 비옥해서 매년 좋은 수확물을 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왕과 도시를 소유한 강력한 사람들이었다(창20:2; 21:32; 출13:17). 그들은 가나안의 씨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하여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족속들에 들지 않는했으나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였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이스라

엘에게 약속된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복은 그리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않아서 재판관들의 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시대 초반부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왕과 귀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국가는 다섯 개로 나뉘어서 각각을 다스리는 귀족 즉 가자와 가드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이 있었다.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의 통치 때에 근 1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삼갈, 삼손, 사무엘, 사울은 그들을 치고 살육하였으나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삿3:14; 삼상4:1-22; 7:1-17; 14:1-52; 31:1-13).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과거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들은 단지 아랍 말을 사용하는 아랍 사람들: 대다수 이슬람

아랍과 이슬람

1. 아랍 국가 연합: Arab league

총 22개국, 인구는 4.3억 명, 국민 소득 4239달러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을 통틀어 아랍 국가로 지칭

즉 아랍 민족의 후예들이라고 보면 됨,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 족이기 때문에 아랍 민족이 아님, 이란도 마찬가지

2. 중동 국가(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북아프리카 포함

총 20-40개 국, 인구는 6억 5천만

북 아프리카 모로코~이란(또는 아프가니스탄) 까지. 터키 불포함

3. 이슬람 국가

총 57개국, 약 16억 명, 종교적인 개념

아랍권+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최대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 1억 9천명, 파키스탄 1억 5천명, 터키도 포함됨

4. 현시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람들 문제는 유대교(기독교)와 이슬람교 혹은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의 싸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아아시아 등 모두 유대인 반대, 기독교 반대

5. 중동 지역 세상에서 최빈국, 1909년 석유 발견, 이스라엘 압박, 그 뒤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이스라엘: 인구 830만 명, 종교 유대교 75%, 이슬람 17, 기타 4, 기독교 2 등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비행기 이름 엘알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은 8%(Haredi Jew), 63%가 세속적, 2%가 중간

<http://www.pewforum.org/2016/03/08/israels-religiously-divided-society/>

어느 면에서 무신론자들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유럽 내 이슬람 확산,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다.

영국 1990년 이슬람 인구 110만, 2010년 287만, 현재는 350만 이상

이슬람 율법대로 하는 샤리아 법정, 인구 확산, 도시 황폐화, 교회 황폐화

특히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회당에 다닐 수가 없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권면한다.

이슬람의 확장은 결국 유대인들의 회귀로 이어지면서 성경의 예언 성취

정통파 유대인들, Temple institute, 성전 예배를 위한 모든 기구 준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마23:39; 계1:7)

이대로 되려면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에 몰려야만 한다. 즉 자력으로 설수 없는 상황

주변 모든 나라들의 극심한 압박

에스겔서 37-40장은 이것을 보여 줌

37장 이스라엘의 회복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 5-6, 곡과 마곡,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대다수 주석가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들 이스라엘 침공

아삽의 시 시편 83편, 4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끊어 버리자.

침공하는 자들(6-8)

그러나 결국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 결국 18절이 이루어짐

슥12:9,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10-13)

창세 이후로 없는 고난(슥13:8-9)

주님의 지상 강림(슥14:2, 4),

모든 민족들 패배

주님의 통치(9)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옴(16-19)

14:21, 가나안 사람은 주의 집에 없다.

욘3:17-21, 사11:6-9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가, 하나님의 경륜 완성(시2)

결론: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

1. 이스라엘은 창세 전에 증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신7:6, 사43:10-11

창조자, 구원자,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주변 민족들에게 증언해야 한다.

2. 그들의 땅은 선택된 땅: 겔5:5,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정해 놓으셨다.

1. 땅은 주님의 것(레25:23)

2.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짐(창12:7; 창17:7-8)

3. 그 땅은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 주어짐(창17:18-19; 창26:3-4)

4. 그 땅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짐(창28:13-14; 창35:11-12)

5. 그 땅의 경계는 명확하게 주어짐(창13:14-17; 창15:18-21; 출23:31), 현재의 이스라엘, 서안 지구, 자가 지구, 골란 고원 등 모두 이스라엘의 것

6. 영원한 언약뿐만 아니라 적어도 40회 이상 하나님은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시 105:8-11),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다.

7. 하나님은 말세에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심(겔36:24, 28; 렘16:14-15).

8. 이렇게 회복되는 땅의 이름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겔37:12).

9. 그 땅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겔36:8-10). 188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돌아옴.

10. 이때에 주변 국가들의 시기를 받을 것이다(겔36:2-5). 비록 잠정적으로 그들이 거기서 추방되었어도 그 땅은 여전히 그들의 것이다.

11. 그 땅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것이다(욘3:1-2). 민족들의 심판, 마25장

12. 이런 갈등은 전 세계적인 갈등이 될 것이다(슥12:2-3).

13. 이때는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될 것이다. 7년 환난기, 특히 후반부 3년 반(렘30:7). 슥13장의 고난, 반 유대인주의 피크, 그러나 유대인들을 없애지 못한다(렘31:35-37).

14.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소멸되거나 대체되거나 지위를 빼앗기거나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에서 버림받거나 그 땅에 추방되었다고 가르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15.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주님의 신속한 재림(시122:6)

16. 예수님의 재림이 없이는 이 땅에 화평이 없다.

17. 이 모든 갈등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 18.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가?